

The 논술	2015 연세대 모의 사회
<문제 1>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을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그 유형들을 제시문 (가-1)과 (가-2)의 논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문제 2>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1)	
<p>사람들은 법을 어기면 형벌을 받고, 도덕을 어기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법이나 도덕, 관습 같은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이 깨질 것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사회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공동체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게임의 규칙이 잘 만들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개인들의 방종으로 사회적 규범이 무너지면, 그 사회 구성원들은 늘 사회의 유지 가능성 자체에 대해 회의를 느낄 것이고, 안정적으로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들게 느낄 것이다.</p>	
제시문 (가-2)	
<p>어떤 사회가 비일상적이고 비관례적인 행동들, 개인 감정이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한 행동들을 '일탈'이라는 말로 억압한다면 그런 사회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채로 생동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개개인의 욕구나 자유 의지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면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호기심, 발명가들의 생각이나 실험들, 예술가들의 전위적인 작업들 같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것들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일탈적 사고나 행동들은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한 지역에 문학, 음악, 예술, 디자인 등 창조적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성소수자들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GDP(국내총생산)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탈은 어떤 사회 질서나 사회적 규범이 변화의 요구에 부딪혔을 때 기존 질서를 변화시키는 긍정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p>	
제시문 (나)	
<p>'뽀샵질(포토샵으로 사진을 꾸밈)', '짱나(짜증이 난다)', '즐겜(즐겁게 게임하세요)', '냉무(내용이 없다)', 'ㅋㅇㅋ(키득키득)', 'ㄱㅅㄱㅅ(감사감사)', '방가(반가워)', 'ㄴㅇ누구', 'ㅇㅇ(응)', '갠전(개인끼리 게임을 하는 것)', '강추(강력 추천)', '솔대(솔직히 말해서 대박이다)', '추카추카(축하축하)', '시러(싫어)', '마자(맞아)', '살앙하눈(사랑하는)', '어쇼요(어서 오세요)', '글쿤(그렇군)', '겨머안(겸허한)', '머쩌근(멋쩍은)', '손주병(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주다가 생긴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점)', '삼포시대(三拋時代,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알바추노(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안 하거나 도망가는 것)', '타조세대 (맹수로부</p>	

터 위협을 받으면 땅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에 빗대어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지만 대책은 없는 세대를 뜻함), ‘직따(직장 내에서 동료들 따돌리는 일)’, ‘월급 루팡(하는 일 없이 월급만 축내는 직원)’, ‘돌직구남/돌직구녀(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남녀)’, ‘생강녀(생활력이 강한 여성)’, ‘김치녀(한국 남성이 한국 여성을 비하해 이르는 말)’, ‘능청남(능력 있고 청소도 잘하는 남성)’, ‘신생아남/신생아녀(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남녀)’, ‘운도남/운도녀(운동화를 신고 출퇴근하는 도시 남녀)’, ‘등골 백팩(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만큼 비싼 책 가방)’

제시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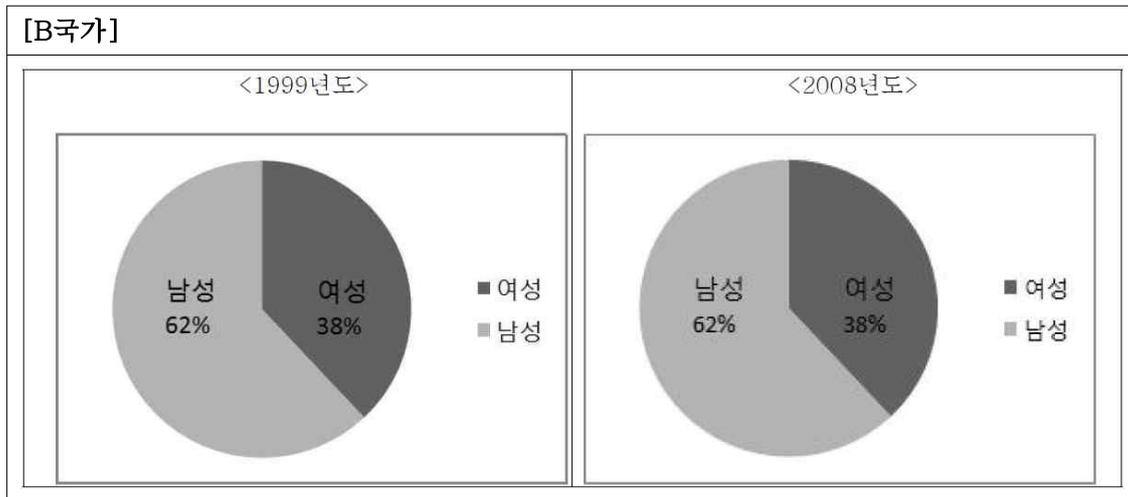
가끔 유명 연예인이나 부유층 자녀 등이 대마초(일명 마리화나)를 흡입하여 뉴스에 보도되곤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수출입업자 · 제조업자 · 원료 사용자 · 관리자 ·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또는 의료업자)가 아니면 대마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 ·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이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마리화나 카페’를 의미한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라고 쓴 간판을 찾아야 한다. 커피숍은 1990년대 중반 전성기를 구가하며 1,400여 개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보수화된 네덜란드 사회 분위기에 밀려 700곳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930년대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의학용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 판매, 이용하는 것을 불법화시켰다. 하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다시 합법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제시문 (라)

아래는 두 국가의 사법 시험 지원율 현황에 관한 통계 자료입니다.

[A국가]

연도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709	801	991	998	906	1,009	1,001	994	1,011
사법 시험 지원 현황	남자	587	650	818	759	716	763	678	619	657	623
	여자	122	151	173	239	190	246	323	375	354	382
	여성 비율 (%)	17.2	18.9	17.5	23.9	21	24.4	32.3	37.7	34	38



1. 1번 문제 풀이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을 적절한 기준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그 유형들을 제시문 (가-1)과 (가-2)의 논지를 활용하여 평가하시오.	
1) 전략 구상	
연세대는 2012년부터 전통적으로 인문, 사회 중 하나의 계열에만 삼자비교형을 출제하고 나머지 계열에는 비전형적 문제를 출제해왔습니다. 2015 모의 인문의 1번 문제가 삼자비교형이었기 때문에 2015 모의 사회 1번 문제는 비전형적 문제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2015 모의 사회 1번 문제는 ‘적절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논지’를 활용하여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서는 꽤 복잡해보이지만 기본기만 튼튼하게 잡혀있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기본기 중 하나인 Basic편의 원리를 통해 접근해보겠습니다.	
개요	Basic편의 ‘논제이해 및 개요작성’을 이용하여 해결
기준	Basic편의 ‘비교’를 이용하여 해결 [특별한 기준]
분류	
논지	Basic편의 ‘요약’을 이용하여 해결 [선재중]
평가	Basic편의 ‘비판’을 이용하여 해결 [예시세구반범]
2) 논제이해 및 개요작성	
2)-1 숨은 의도 찾기	
일반적 기준이 아닌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사고형을 표방하는 연세대 논술고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은 단편적인 것이 아닌 다면적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주제(공통점)를 설정해주는 것은 독해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준들 사이의 공통점을 설정하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의 채점기준에 의하면 창의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기에 기준이 독창적 사고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일수록 좋습니다.	
2)-2 분량, 핵심어를 고려하여 단락을 나눈 개요 [분류 후 평가형 - 4문단, 15~20문장의 구조]	
1문단 - 1~2문장	
① 주제를 포괄하는 문장 (언어는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	
2문단 - 4~6문장	
② 적절한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두괄식으로 밝히는 문장	
③ 기준에 따른 분류와 그에 대한 근거	
3문단 - 5~6문장	
④ (가-1)의 논지 (규범)	
⑤ (가-1)의 논지에 의한 언어현상 평가	
4문단 - 5~6문장	
⑥ (가-2)의 논지 (자율성)	
⑦ (가-2)의 논지에 의한 언어현상 평가	

3) 기준에 따른 분류 (비교의 원리를 통해 다면적 기준을 드러내는데 집중할 것)	
일반적 기준인 주제, 대상, 의도, 방법, 결과, 범위에 의해 분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숨은 의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들을 상기하며)	
① ‘뽕샙질(포토샙으로 사진을 꾸밈)’, ‘방가(반가워)’, ‘짱나(짜증이 난다)’, ‘즐겜(즐겁게 게임하세요)’, ‘냉무(내용이 없다)’, ‘어좌요(어서 오세요)’ -> 편리성, 친근성을 위한 언어	
② ‘ㄱㄷㄱㄷ(키득키득)’, ‘ㄱㅅㄱㅅ(감사감사)’, ‘ㄴㄱ(누구)’, ‘ㅇㅇ(응)’ ->통사구조를 무시하고 자음으로만 된 언어	
③ ‘갠전(개인끼리 게임을 하는 것)’, ‘강추(강력 추천)’, ‘술대(술직히 말해서 대박이다)’, -> 축약형 언어	
④ ‘추카추카(축하축하)’, ‘시러(싫어)’, ‘마자(맞아)’, ‘살양하눈(사랑하는)’, ‘글쿤(그렇군)’, ‘겨머안(겸허한)’, ‘머쩌근(멋쩍은)’ ->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언어	
⑤ ‘손주병(맞벌이하는 자녀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봐주다가 생긴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점)’, ‘삼포시대(三抛時代,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등골 백팩(부모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만큼 비싼 책가방)’ ->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언어	
한 언어가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않겠지만 몇 가지의 기준에 따라 대략적 분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지고서 바로 글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가-1)과 (가-2)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논지파악 (요약의 원리인 선재중을 이용하여)	
4) -1 선택과 삭제	
본문의 핵심 내용만을 선별	
(가-1)	(가-2)
‘사회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의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공동체와 맺는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은 게임의 규칙이 잘 만들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개인감정이나 자유 의지를 바탕으로 한 행동들을 ‘일탈’이라는 말로 억압한다면 그런 사회는 획일화되고 경직된 채로 생동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개개인의 욕구나 자유 의지를 제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억압한다면 사회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2 재구성	
본문의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 로 표현	
(가-1)	(가-2)
교과서적 개념을 조금 활용하자면 (가-1)의 논지는 만약 사회규범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들은 ‘만	(가-1)과는 반대로 (가-2)는 획일화된 문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배경에서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독창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p>인 대 만인의 투쟁'에 가까운 상태에 놓이게 되어 불안에 떨거나 방종에 빠지게 될 것인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규범을 제대로 지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사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p>	<p>고 하며 사회규범에서 벗어난 비전형적 행위인 '일탈'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 '일탈'이라고 치부하는 행위들이 오히려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야기함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키는 연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유희적, 창조적 특성이 기존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p>
---	---

4) -3 중립적 표현

~한다, ~하는 셈이다, ~라고 본다, ~에 의하면 등을 사용하여 중립적으로 표현.

<p>(가-1)</p> <p>제시문 (가-1)은 사회적 규범의 준수를 강조한다. 한 사회의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p>	<p>(가-2)</p> <p>(가-2)는 우리가 '일탈'로 규정하는 비전형적 행위가 실제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유희적 독창성을 발휘하게 하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틀을 따르는 것은 예상된 결과만을 낳을 뿐이므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p>
--	---

5) 평가 (비판의 원리를 이용하여)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제시문의 언어 현상들은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어문규정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범을 중시하는 (가-1)에 의하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가-2)에 의하면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뉩니다. 위의 기준에 의해 분류된 언어현상 모두를 일탈로 파악하는 입장과 일부는 일탈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고, 일부는 일탈로 인해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앞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언어현상을 분류한 것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연세대의 출제의도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무조건 후자의 입장을 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답안이 전자의 태도를 택했어도 크게 감점요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의 구체성과 설득력입니다.)

5) -1 평가의 대상 - 제시문의 언어 현상

5) -2 평가의 기준을 고려한 비판의 구체화

(가-1)		(가-2)
예상 결과	○	<p>사회구성원들이 표준어문규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해 불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어를 활용한 언어적 잠재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p> <p>천편일률적인 언어용례를 벗어나 구분했던 기존의 언어표현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언어적 다양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p>

시의 적절성	○	위 언어현상은 모두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것인데, 현재는 인터넷이 필수인 시대이므로 아주 시의적절하다.	
세분화	○	‘손주병’, ‘삼포시대’, ‘등골 백팩’ 등의 시대를 반영한 언어현상은 어문규정을 지키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규범을 지키며 잠재력을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X
구체화	X	제시문의 언어 현상이 충분히 구체적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다.	
반례 찾기	X	제시문은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현상을 나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 없다.	
범위	○	인터넷에서 계속 이와 같은 부정적 언어표현들이 생겨나게 되면 실제 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표준어문규정을 무시하는 언어현상들이 통용될 것이다.	실제생활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러한 독창적 표현들이 사용된다면 삶의 위트를 더해 사회의 윤희유 역할을 할 것이다.
6) 답안 작성			
1문단	언어는 한 시대의 문화를 투영하는 거울이기에 시대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한다.		
2문단	제시문 (나)의 언어현상은 어문규정을 위반한 신조어와 어문규정을 지키며 독창성을 발휘한 신조어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방가’, ‘즐겜’처럼 편리성 또는 친근성을 위한 언어현상, ‘ㄱㄱㄱㄱ’, ‘ㄴㄱ’처럼 통사구조를 무시하고 자음으로만 된 언어현상, ‘술대’, ‘강추’ 같은 축약형 언어현상, 그리고 ‘겨머안’, ‘머찌근’ 같은 맞춤법이나 표기법을 무시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언어현상이 포함된다. 그리고 후자에는 ‘삼포시대’, ‘손주병’처럼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언어현상이 포함된다.		
3문단	제시문 (가-1)은 사회적 규범의 준수를 강조한다. 한 사회의 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와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삼포시대’, ‘손주병’과 같은 언어현상은 어문규정을 지키며 창조성을 발휘한 것이기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방가’, ‘ㄱㄱㄱㄱ’, ‘술대’, ‘겨머안’으로 대표되는 어문규정위반 신조어들은 부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사회규범이라 할 수 있는 어문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어문규정을 학습하게 하여 창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표준어의 올바른 사용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형성되고 발달된 이러한 언어현상은 중·장년층에게는 생소한 것이어서 중·장년층은 이러한 언어현상에 익숙한 신세대들과 사회적 거리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중·장년층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p>4문단</p>	<p>(가-2)는 우리가 ‘일탈’로 규정하는 비전형적 행위가 실제로는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유희적 독창성을 발휘하게 하여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의 틀을 따르는 것은 예상된 결과만을 낳을 뿐이므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위 언어현상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언어현상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기존의 용례에는 맞지 않는 일종의 ‘일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자면 ‘방가’같은 경우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반갑습니다.’에 친근감을 더하여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표현법의 가짓수를 늘려줄 수 있다. 그리고 ‘삼포시대’같은 경우 각박한 세상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는 단어로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켜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는 사회변화의 연료로써 작용할 것이다.</p>
-------------------	---

2. 2번 문제 풀이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오.							
1) 전략 구상 (개요작성의 원리 중 단락 나누기와 숨은 의도 찾기를 고려하여)							
<p>아시다시피 연세대 논술고사 2번 문제는 1번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 후 제시문의 주장 혹은 자료의 내용을 평가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해석형 문제는 여러 제시문을 종합하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다시 상기하며 본격적으로 전략을 구상해보시다. 먼저 사회 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의 논지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 제시문의 논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요약의 원리와 논증의 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다면적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때 발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회 규범에 여러 기준을 더할 것이 아니라, 사회 규범 내부에서 여러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p>							
○				X			
사회규범	기준 A	기준 B	기준 C	사회 규범			
				기준 A	기준 B	기준 C	기준 D
<p>그리고 다음에 제시문 (라)의 A국가와 B국가의 상황을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A국가와 B국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다)의 논의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을 사용해야 비교·분석하기가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 (다)가 사회규범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A국가와 B국가의 사회규범을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석’이라는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The 논술을 통해 비교와 비판 혹은 평가를 하는 기준은 배웠지만, 분석을 하는 기준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상을 분석하는 법을 체득했습니다. 분석은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탐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심화된 비교라고 파악하면 됩니다. 이는 다면적 사고를 중시하는 연세대의 취지를 반영한 단어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의 일반적 기준과 특별한 기준으로 문제를 풀되 이 과정에서 일반적 비교문제보다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드러내면 됩니다. 여기에 부족하다면 융통성 있게 비판의 기준도 고려해도 됩니다. 분석이라고 하여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p>							
2) 개요작성 15~20문장 (13가지 기본적 원칙 중 첫 번째 원칙)							
<p>예시 답안과 딱 맞아 떨어지는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요는 어디까지나 답안을 쓰기 전에 글의 방향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개요는 원래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p>							
1문단 - 1문장							
① 주제포괄형 문장							
<p>2015인문과는 다르게 자료만 추가된 문제가 아니라 특정 관점을 드러내는 제시문 (다)가 포함되었으니, 주제포괄형 문장을 넣어 채점자를 집중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p>							

2문단 - 3~5 문장 (적용 가능한 명제 이끌어내기 - 자료 평가의 기준)	
②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본 (다)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두괄식으로 제시	
③ 그에 대한 근거	
3문단 - 3~5 문장	
④ A국 및 B국의 상황	
4문단 - 6~8 문장	
논지 파악이나 자료 해석이 모두 이 문단의 분석을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문장을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다)의 논지로서 각 국가의 상황을 비교 분석.	
3) 제시문 (다)의 논지 파악 (요약 및 논증의 원리를 적용하여)	
‘커피숍은 1990년대 중반 전성기를 구가하며 1,400여 개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보수화된 네덜란드 사회 분위기에 밀려 700곳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1930년대까지 미국의 거의 모든 주들은 의학용 목적 이외의 이유로 마리화나를 재배, 유통, 판매, 이용하는 것을 불법화시켰다. 하지만 마리화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2012년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는 주민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다시 합법화시켰다.’	‘우리나라에서 대마초는 마약류로 분류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받는다.’, ‘반면 네덜란드에서 ‘커피숍’이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마리화나 카페’를 의미한다.’
-> 같은 국가라도 시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규범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엄격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시들해졌고, 미국에서 불법약물로 금지되어오다가 최근 몇 주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4) 자료 해석 (중강약논)	
논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주제 - ‘규범’의 의미	
(가-1)	‘규범’이 제 힘을 발휘할 때 사회 발전이 이루어진다.
(가-2)	‘규범’은 사람들의 사고를 경직시키므로 혁신을 가져오기 어렵다.
(다)	‘규범’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상대성을 지닌다.
이렇게 논술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통하는 주제와 각 제시문의 논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시문 (라) 자료의 해석기준	공통 주제	(가-1)	(가-2)	(다)
	자료의 무엇이 규범을 의미 하는가	그 규범이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요소인가 아니면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가		그 규범이 국가와 시대에 따른 상대성을 지니는가

[A국가]

연도 현황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계	709	801	991	998	906	1,009	1,001	994	1,011
사법 시험 지원 현황	남자	587	650	818	759	716	763	678	619	657	623
	여자	122	151	173	239	190	246	323	375	354	382
	여성 비율 (%)	17.2	18.9	17.5	23.9	21	24.4	32.3	37.7	34	38

[B국가]



제시문 (라)는 A국가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년간 성별에 따른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국가의 1999년과 2008년의 성별에 따른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국가에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1999년 17.2%에서 2008년 38%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와 달리 B국가에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1999년과 2008년 모두 38%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 비교 분석 및 평가해볼 수 있겠지만, 특히 위의 국가별, 시대별 사회규범의 변화양상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 및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규범이란 남녀의 성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별 사회규범의 변화양상에서 보자면, 1999년을 기준으로 A국가는 여성

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17.2%에 불과하지만, B국가는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무려 38%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성역할을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시대별 사회규범의 변화양상에서 보자면, 1999년을 기준으로 17.2%에 불과했던 A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이 2008년에는 38%로 크게 높아진 것을 볼 때, 같은 국가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자면, B국은 1999년에 이미 진보적으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변함이 없었으므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정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38%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B국은 처음에는 A국보다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이 높았지만 이후로 정체된 모습을 보였고, A국은 17.2%에서 10년간 38%까지 지원율이 높아졌으므로 향후 B국의 지원율을 따돌리고 더 높은 지원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본다면, B국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A국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탈피하여온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4) 답안 작성 (논증, 요약의 재구성 및 중립적 표현의 원리와 결합하여)

1문단	사회규범은 국가나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기존 규범을 탈피하는 것이 사회적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
2문단	제시문 (다)는 사회규범과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규범은 같은 시대라도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가 마약으로 규정되어 유통이 금지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규범은 같은 국가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대마초는 네덜란드에서 호황을 누리다가 최근 엄격한 사회분위기에 의해 시들해졌고, 미국에서 불법약물로 금지되어오다가 최근 몇몇 주에서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3문단	제시문 (라)는 A국가와 B국가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의 관점에 부합한다. 첫째, 1999년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17.2%에 불과한 반면 B국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무려 38%에 이른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면, 이는 같은 시기에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둘째, 1999년 17.2%에 불과했던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이 2008년에는 38%까지 치솟았다. 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4문단	위의 평가를 토대로 향후 A국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해볼 수 있다. 첫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38%에서 정체를 맞이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99년에 이미 B국이 진보적으로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를 기록하고 있었지만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38%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정체가 필요하거나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의 성장은 38%가 한계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에 38%를 기록한 A국도 한 동안 정체를 맞이하거나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A국의 여성 사법시험

<p>지원율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 B국은 A국보다 먼저 38%를 기록했으나 변화 없이 10년간 이 비율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A국은 비록 B국보다 늦은 시기에 성역할의 개방성에 대한 인식이 진보적으로 발전했지만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되어 A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은 B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을 추월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것을 사회적 발전이라고 본다면 B국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성역할에 있어서 사회적 정체를 맞이하고 있지만, A국은 기존의 사회규범을 탈피하여온 결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라는 사회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p>
--

3. 학생 답안 첨삭본

1) A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제시문 (나)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은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우선 뽕샷 질~머찌근 까지를 첫 번째 부분으로 분류하고 그 뒷 부분을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문 (나)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과거에는 없다가 새로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어문 규정, 즉 규범이라는 점과 창의성이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첫 번째 부분은 인터넷용어로 주로 채팅시에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경제성을 위해 많은 어문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과 단순히 용어를 줄여놓은 형태이다. 두 번째 부분은 채팅용어라기 보다는 시대상황에 맞게 기존에 쓰던 말들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이들은 첫 번째 부분에 비해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 ‘뒷 부분’은 ‘뒷부분’으로 붙여써야합니다. ‘따라서 경제성을 위해 많은 어문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과 단순히 용어를 줄여놓은 형태이다.’라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의 호응관계가 어색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경제성을 위해 단순히 용어를 줄이는 형태 등으로 어문규정을 어기고 있다.’정도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분류기준으로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을 두 가지로 분류한 점은 좋습니다만, 이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었다면 어땠을까하고 생각해봅니다. 특히 다면사고형을 표방하는 연세대의 경우 하나의 사회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부분의 인터넷용어로 분류한 언어현상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문단

제시문 (가)-1 와 (가)-2는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에 관한 글이다. 제시문 (가)-1은 사회 규범을 잘준수하는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면들과 사회 규범이 무시되었을 때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어 사회 규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가)-2는 개인이 탈규범적인,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관한 행동을 사회에서 규제할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탈규범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예로 들어 사회 규범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한다는 논지를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 (가)-2를 통해 제시문(나)를 바라볼 때 제시문 (나)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둘 다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벗어나 기존의 용어들 더 경제적으로 쓰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제시문 (가)-1를 통해 제시문 (나)를 본다면 이는 어문 규정을 어긴 행위로써 사회 규범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질 수 있다. 즉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규범을 어겼다는 관점으로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들은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 ‘잘준수하는’은 ‘잘 준수하는’으로 고쳐야 합니다. ‘보여질 수 있다’는 어색한 피동표현입니다. ‘보일 수 있다’로 바뀌야 합니다. ‘첫번째’는 ‘첫 번째’

	<p>로 띄워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1’은 문제에 나와 있듯이 ‘(가-1)’로 표기해야 합니다. ‘제시문 (가)-1은 사회 규범을 잘 준수하는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면들과 사회 규범이 무시되었을 때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들어 사회 규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문장은 틀린 것은 아니나, 제시문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회구성원들이 그 규범을 잘 따를 때 구성원들은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그 토대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보다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시문 (가)-2는 개인이 탈규범적인, 즉 개인의 자유의지에 관한 행동을 사회에서 규제할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탈규범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을 예로 들어 사회 규범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한다는 논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문장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제시문 (가-2)의 핵심 논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시문 (가-2)는 사회가 ‘일탈’로 규정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p> <p>더 지적할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위의 두 문장에 대한 지적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문장의 수준이 평이하고, 분석의 깊이가 얕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심화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p>
[문제 2]	
1문단	<p>제시문 (라)의 자료는 1999년~2008년도 사이 A국가와 B국가, 두 국가 사이의 사법 시험에 지원한 남녀 비율을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원율의 남녀비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A국가에서는 1999년 지원 당시 여성의 비율이 17.2프로에 불과했던 반면 B국가에서는 1999년도 당시 38프로라는 높은 여성의 지원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8년도 지원율에서는 A국가에서의 여성의 지원율은 비교적 꾸준히 늘어 38프로까지 증가한 반면 B국가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은 38프로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를 특정 신분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상황과 네덜란드 미국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의 마약은 마약전용 카페가 있을 만큼 합법적이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회 분위기의 보수화로 인해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와 같은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30년대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의학용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의식이 바뀌면서 미국 내 일부에서는 마약이 합법화 되는 법률을 통과시키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제시문 (다)를 통해 사회규범이라는 것은 비록 법으로 합의해서 정해놓았더라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따라서 규범이 철폐될 수 있고, 규범이 없었더라도 사회 구성원의 의식에 따라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다)를 통해 제시문 (라)의 두 국가의 상황을 보면 A국가는 통계기간동안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의식이 비교적 증가해왔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B</p>

	<p>국가는 통계기간 동안 비교적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분위기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p> <p>-> 문단의 구분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연세대의 채점기준에 의하면 1문단에 1개의 주제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번 문제에 대한 답안을 전체적으로 1문단으로 묶어버린 점이 감점요인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참조하여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시오.’이므로 제시문 (다)가 사회규범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의 사례가 어떠한 것인지, (다)의 관점으로 이 사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분석을 통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읽는 사람에게 친절한 답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 답안은 제시문 (라)의 사례에 대한 해석, (다)의 내용, (다)에 의한 평가 등이 복잡하게 들어있어서 읽는 사람에게 불친절한 답안이 되었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같은 시기에 국가별로 사회규범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규범이 변화한다는 점만이 드러나 있는데, 이 점 또한 아쉽습니다. 앞에서 이런 정도의 분석밖에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를 가지고서 (라)를 분석한 내용도 수준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p>	
총평	총체적 난국.	
평가	문제 1	문제 2
	<i>CO</i>	<i>CO</i>

2) B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나)의 언어 현상은, 그 과정에서 고유한 의미를 창출했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즉, 기존의 단어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독립적인 의미를 함축했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의미 내포 없이 효율성만을 위해 축약과 탈락을 거친 단어들이 존재한다. 즐겼이나 ㄱㅅㄱㅅ, 머찌근 등의 단어들은 전달의 신속성이나 작성의 효율성을 위해 변형된 것일 뿐, 어떤 상황이나 특징을 대변하는 의미를 새로이 가지진 못한다. 이와 다르게 고유한 의미를 전달하는 신조어들이 존재 한다. 즉,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동시대의 현상이나 특정 관계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 조부모에 의한 돌봄노동이 확산된 현시대를 반영하는 ‘손주병’이나, 가정적인 남성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를 드러내는 ‘능청남’등이 그 예이다.</p> <p>-> 언어현상을 두 가지로 분류한 것이 조금 단순한 것 같지만, 뒤의 논의에서 (가-1)과 (가-2)를 가지고서 두 가지를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괜찮은 서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더 나은 답안을 위해서 굳이 지적하자면 첫 번째 문단에 ‘(나)의 언어 현상은, 그 과정에서 고유한 의미를 창출했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즉, 기존의 단어로는 대체되기 어려운 독립적인 의미를 함축했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는 한 문장으로 줄이는 것이 낫습니다. 위 언어 현상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지는 한 번에 설명하면 족하기 때문입니다.</p>
2문단	<p>이러한 언어 현상은 더 나아가, 사회 규범의 안정성과 역동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우선(가)-2와 같이 사회의 역동성과 즉각적인 수용능력을 긍정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후자의 언어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창조적인 언어 변용은 그 자체로 언어 관습에 새로운 질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 이슈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 변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화하는 사회상을 공동체의 언어에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진보를 부추기는 것이다. 반면에 전자의 언어 현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가)-1같이 사회 규범의 준수와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전자와 후자의 언어사용은 모두 부정적인데, 언어 규범을 무시한 신조어 그 자체가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어문 규정을 어긴 신조어는 세대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한국어의 정체성을 흐릴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경우가 어문 규정을 준수한 복합어인 경우에는 용인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의미의 창출은 규범을 지킨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이러한 언어 현상은 더 나아가’라는 부분은 어색합니다. 첫 번째 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좀 더 심화적인 평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더 나아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가)-2는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가-2)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자의 언어 현상이 사회변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여 좋습니다만,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한 번</p>

	<p>에 끝낼 수 있는 설명을 여러 문장에 걸쳐 표현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어 현상이 사회 변혁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한 번만 적어주면 족합니다. 그 뒤에 ‘반면에 전자의 언어 현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장은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입니다. 후자의 언어 현상이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해놓고, 전자의 언어 현상에 대해서는 달랑 한 문장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구조상(구성 비율)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적하자면 (가-2)의 논지는 일탈로 규정되는 행위들이 사회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봤을 때 전자의 언어 현상도 인터넷 상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언어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 답안의 주장은 그 근거가 빈약하여 합리적으로 수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1)을 통하여 전자와 후자의 언어 현상을 평가한 문장이 시작될 때에는 문단 구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문단에는 한 주제만이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가-1)로 위 언어현상을 평가한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회규범의 준수와 안정성의 관점에서 후자의 언어 현상이 어문규정을 어겨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어문 규정을 준수한 복합어인 경우에는 긍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논증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학생의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그 의도대로 적으려고 했으면 ‘전자의 현상은 어문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후자의 현상은 어문규정을 지키면서 창조성을 발휘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정리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p>
<p>[문제 2]</p>	
<p>1문단</p>	<p>(라)의 A국과 B국은, 남녀의 사법 시험 지원율에 변화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인다. 우선 A국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반대 급부적으로, 남성의 지원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B국은 1998년과 2008년의 사법 시험지원 현황에 있어 남녀 성비의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규범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이나 현상으로 정의한다면, A국은 단기간에 사회규범의 변혁을, B국에서는 사회규범의 유지를 겪은 것이다.</p> <p>-> 두괄식으로 A국과 B국이 사법 시험 지원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고 정리한 점 좋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대 급부적으로, 남성의 지원율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문장은 굳이 적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여성의 지원율이 높아진다면 남성의 지원율은 당연히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필요 없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사회규범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이나 현상으로 정의한다면, A국은 단기간에 사회규범의 변혁을, B국에서는 사회규범의 유지를 겪은 것이다.’라는 문장에서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규범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관습이나 현상으로 정의한다면’은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또는 관습을 포함하기 때문에’로 고</p>

	<p>치는 것이 더 의미가 분명할 것입니다. 둘째, 'B국에서는 사회규범의 유지를 겪은 것이다.'는 'B국에서는 기존의 사회규범이 계속 유지되었다.'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p>
<p>2문단</p>	<p>10년만에 여성의 사법 시험 응시가 확산된 A국의 경우, 사회규범의 변화에 있어 네덜란드와 같은 양상을 띤다. 네덜란드 사회는 대마초 흡연에 있어 10년 만에 개방적인 태도에서 보수적인 태도로 급격히 변했다. 바로 이점이, 단기간에 여성의 사법 시험에 지원이 증가한 A국과 공통점을 가지는 것이다. 즉, 단 기간에 사회규범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이유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해 1998년과 2008년에서 성비 변화를 보이지 않은 B국은 미국의 사례와 일맥상통한다. 비록 미국이 2010년대에 들어와 대마초에 개방적인 분위기를 수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전까지, 특히 1930년대 즈음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대마초는 여전히 불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규범이 단기간에 변화할 수는 없음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점이 B국과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결국 (라)의 표의 A국은 사회규범의 수정에 있어 네덜란드와 같이 유동적인데 반해, B국은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림을 알 수 있다.</p> <p>-> '10년만에'는 '십 년 만에'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는 가급적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좋고, '만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떨다.'는 '떨다.'로 고쳐야합니다. 그리고 이쯤 읽으니 학생이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의 관점을 가지고 (라)의 국가들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의 변화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지 (다)의 현상과 (라)의 현상을 비교·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위와 같다면 순차적으로 (다)의 관점을 밝힌 후 이를 바탕으로 (라)를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p>
<p>3문단</p>	<p>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A국과 B국은 공통점을 보이는데, 아무리 A국에서 여성의 사법 시험 지원율이 높아졌다고 해도, A국과 B국 모두 여성의 지원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사회의 기저에 깔린 근원적인 사회규범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와 미국, 한국 모두가, 대마초 흡연이 법률의 감수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규범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A와 B국의 사법 시험 지원에 있어서도 남성의 참여가 더 용인되고 있는 모습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이다.</p> <p>-> 답안의 개요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서 그런지 글의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의 국가들을 바탕으로 (라)의 국가들과 비교한 후 (라)의 국가들 간의 공통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A국과 B국 모두 여성의 지원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의 근본적 규범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서 네덜란드, 미국, 한국 모두가 대마초 흡연이 법률의 감수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제시합니다. 네덜란드, 미국, 한국이 모두 대마초가 위법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차치물론하고서라도(과연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p>

	지도 의문입니다 - 네덜란드는 합법적으로 커피숍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수 있고, 미국은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필 수 있는 주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과 근거는 논증력 및 추론력이 떨어집니다. 유추적용(A일 때 B이면, A'일 때도 B일 것이다.)은 A와 A'가 서로 상관성이 높을 때 설득력이 있는데, 대마초에 관한 사회전반의 인식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 사이에는 그다지 높은 상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총평	리라이팅이 필요한 글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평가	문제 1	문제 2
	<i>CO</i>	<i>CO</i>

3) C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축약의 관점에서 형식 중심과 내용 중심의 축약으로 분류가 된다. 두 가지 모두 쓰거나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어들을 축약했다. 형식 중심의 축약은 다시, 발음나는대로 쓴, 문법을 무시하는 축약과 말의 일부를 발췌해 간단히 만든 축약으로 나뉜다. '시러, 마자, 겨머안' 같은 예가 발음나는대로 쓴 단어들이다. 자음을 발췌한 'ㄴㄱ, ㅇㅇ'과 같은 예와 '술대, 강추' 등과 같은 음절을 발췌한 예는 말의 일부를 발췌한 것들이다. 또한 문법 무시와, 발췌를 합친 '글쿤' 등의 단어도 존재한다. 이들과 달리 내용 중심의 축약은 대표성을 띄는 단어와 사람 또는 물건을 연결해, 비유의 방식으로 만든 단어이다. '신생아남, 운도녀, 등골 백팩'과 같은 단어들은 신생아의 특성, 운동화 신는 특성, 등골이 휘어질 만큼 힘든 특성을 이용한 단어들이다.</p> <p>-> '두 가지 모두 쓰거나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 단어들을 축약했다.'라는 문장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약은 당연히 쓰거나 읽는 시간을 단축시켜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이니까요. 당연한 문장은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발음나는대로'는 '소리 나는 대로'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눈 후 형식에서 기준을 세분화하여 총 다섯 가지로 위의 언어 현상을 분류한 점은 좋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글이 다소 복잡하여 읽는 사람에게 불친절한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를 쉽게 풀어서 짧게 쓴 후에 (가-1)과 (가-2)를 통해 이를 평가하는 부분에 분량을 좀 더 할애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p> <p>[수정] 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내용 중심의 축약과 형식 중심의 축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내용 중심의 축약은 단어가 나타내고자하는 특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합성한 것으로서, '신생아남', '운도녀', '등골백팩'등이 그 예이다. 형식 중심의 축약은 '시러', '겨머안'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쓴 말과 'ㄴㄱ', '술대'처럼 자음이나 음절을 단위로 단어의 일부만을 표기한 말, 그리고 전자와 후자의 특성을 합한 '글쿤'같은 말로 나눌 수 있다.</p>
2문단	<p>이들을 제시문 (가-1)의 논지를 활용해 평가해보면, 제시문 (나)는 세대에 따라 다른 평가가 이루어진다. 10, 20대 세대의 경우에는 (나)가 사회 규범을 지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신생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에서 (나)의 단어들은 지배적 규범이다. 모두가 신생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30,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나)의 단어들은 하위문화일 뿐, 공유성이 존재하지 않기에 사회 규범이 아니다. (나)의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는 일이고, 사회 규범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달리, (가-2)의 논지를 활용해 (나)를 평가해보면, 세대와 무관하게 긍정적인 것으로</p>

	<p>로 평가된다. 어떤 세대이든 신생어라는 개념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행동이다. 기존과 다른 생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회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온다. (나)의 새로운 조합의 단어들은 기존의 단어들과는 다른, 새로운 단어이기에 (가-2)는(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p> <p>-> 우선 (가-1)과 (가-2)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간단히 라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어’는 ‘신조어’로 바꾸어 써야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나눈 다섯 가지 분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쉽습니다. 이 때문에 답안이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따로 가는 느낌입니다. 세대별로 나누어 지배적 사회규범을 달리 상정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답안으로서 아주 참신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표현력, 논증력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의 답안에서 높은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데도 이 정도로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은 다소 아쉽기에 위 글을 바탕으로 수정을 가하여 수정답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눈 현상을 활용하는 것은 예시답안에서 보여드렸기에 이는 생략하겠습니다.)</p> <p>[수정]</p> <p>제시문 (가-1)은 사회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의 유지가능성에 대해 안심을 할 때에 자신의 창조성을 극대로 발휘하여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이 논지를 활용할 때, (나)는 두가지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일단, 인터넷 용어의 사용 및 최신 사회현상을 반영한 신조어의 사용이 지배적 규범으로 작동하는 십대, 이십대, 삼십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언어현상이 자신들의 창조성을 극대로 발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언어현상은 그 이상의 연령층에게는 생소한 현상이며 이들에게는 기존 표준어의 사용이 지배적 규범이므로 위와 같은 현상은 일종의 일탈로 규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상은 사십대 이상의 연령층에게 기존의 사회규범의 지속적 유지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을 자극할 것이므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없다.</p> <p>제시문 (가-2)의 논지는 우리가 쉽게 일탈로 규정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당연히 (나)의 언어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위의 언어현상은 일종의 일탈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ㄴㄱ’, ‘시러’등의 용어는 사용의 신속성을 더하여 인터넷용어라는 새로운 언어체계를 형성하여 한글의 다양성을 더하였으며, ‘알바추노’등의 사회현상을 반영한 단어는 사회구성원들이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발전을 유도하는 원동력이라고도 볼 수 있다.</p>
[문제 2]	
1문단	<p>사회규범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다)를 보면, 사회규범의 고정성, 변동성, 특수성, 확산성을 보여준다. 한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타 나라들은 진보 또는 보수로 사회적 인식과 규범이 변동했</p>

	<p>다. 네덜란드는 진보에서 보수로, 미국은 보수에서 진보적 관점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한 덕에 마약을 불법화시키거나 합법화시켰다. 이로 보면, 동시대라 하더라도 사회의 인식에 따라 마약의 불,합법이 결정된다. 이는 사회규범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들의 마약의 합법화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으로 보아, 사회규범의 확산성도 볼 수 있다.</p> <p>-> (다)를 고정성, 변동성, 특수성, 확산성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파악한 것은 다면사고형 논술을 표방하는 연세대 논술의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서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여 아주 좋습니다. 네 가지 관점을 밑의 논의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밑의 논의에서 아주 적절하게 활용되어 있으므로 괜찮았습니다.</p>	
2문단	<p>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와 B국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A국가는 사법시험을 보는 것이 남성 위주라는 인식에서 여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고 있다. 1999년에 17.2%의 여성 비율에서 2008년에는 38%의 비율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A국가는 사회의 규범적 인식이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달리, B국가는 1999년도와 2008년의 여성 비율 차이가 전혀 나지 않고 있다. 이 시기 사이에는 변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B사회의 사회규범은 고정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1999년도의 두 국가 사법시험 여성 비율의 차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사회규범의 특수성이 존재함도 파악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무조건 진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인식에 따라 규범이 변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A국가와 B국가가 인접해 있었다면 A국가의 규범의 변동이 B국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추론도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규범의 확산성에 따라 결국 2008년에는 두 국가의 사회규범이 같아진 것이다. 이로 볼 때, A, B국의 가장 큰 차이는 사회규범의 변동 유무라고 말할 수 있다.</p> <p>-> 위의 네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라)의 현상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분석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쉽고도 창의적으로 답안을 작성하여 차별성이 부각됩니다. 굳이 하나 지적하자면 위의 논의가 A국의 향후 변화양상을 예측해보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p>	
총평	뛰어난 창의력에 표현력과 독해력을 더한다면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 1</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color: red;">B0</p>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 2</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color: red;">A-</p>

4) D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제시문 (나)의 언어현상은 현재 사회에 대두되는 현상을 기반으로 했는지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사회현상과는 무관하게 말이 바뀐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짱나, 마자, ㅇㅇ이 있다. 이는 다시 바뀐 상태가 아예 새로운 말인지 원래 상태에서 맞춤법만 파괴된 것인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아예 새로운 말이 된 경우, 뽕삼질, 술대와 같이 말을 줄이거나 재조합하는 형태를 보였다. 맞춤법이 파괴됨으로써 말이 바뀐 경우 다시 발음 나는 대로 쓰였는지 음운규칙에 어긋나게 쓰였는지로 나뉜다. 발음나는 대로 쓰인 것에는 대표적으로 마자가 있고, 음운규칙에 어긋나게 쓰인 것에는 대표적으로 ㅇㅇ이 있다. 새로운 사회현상 내포 여부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된 것 중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회현상을 명사형으로 줄인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손주병, 능청남, 운도녀가 있다. 이는 만들어진 단어를 분리시켰을 때 뜻 있는 단어로 분리가 되고, 그 뜻 거의 그대로 쓰이는 경우,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아예 뜻 있는 단어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p> <p>-> 제일 먼저 글이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글을 썼을지 모르겠으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글이 너무 복잡하고 정돈이 되지 않아 꽤 불친절한 답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다면사고형을 표방하는 연세대논술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은 좋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러 관점이 합리적이며,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복잡한 기준으로 언어현상을 나누었음에도 적절한 예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져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뒤에서 이렇게 분류한 기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에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매번 강조하지만 글은 최대한 쉽게 써야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첨삭을 해도 좋은 글이 나올 수 없기에 위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본을 작성해보겠습니다.</p> <p>[수정]</p> <p>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크게 사회현상을 반영한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로 나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대표적 언어현상은 손주병, 능청남, 운도녀가 있다. 이들은 각각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봐야하는 현상, 가정적 남성을 선호하는 현상, 건강을 위해 운동화의 사용을 권장하는 현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전자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의 대표적 언어현상은 짱나, 마자, ㅇㅇ 등이 있다. 이들은 ㅇㅇ처럼 단순히 어문규정을 어기거나 짱나, 마자처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현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p>
2문단	<p>분류된 제시문 (나)의 언어현상 유형 중 새로운 사회현상과 무관하게 말이 바뀐 유형은 제시문 (가-1)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다. 무분별 하게 언어 규범을 파괴하여 말을 줄이거나 변형시키는 경우, 언어 전체의 안정성에 큰 손</p>

	<p>실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범을 벗어나는 비 관례적인 언어가 생동감을 줄 수 있다는 제시문(가-2)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이 엿보일 순 있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방법과 형태로 변하는 이러한 형태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창의성을 결여시킬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규칙이 계속 흐트러질 경우, 공동체와 개인 간의 소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사회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등장한 신조어들의 경우, 실제 단어 뜻과의 괴리로 인해 마찬가지로 언어규범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순 있지만, 새로 등장한 것에 의한 규범 변화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언어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경직되지 않고 생동감 있는 새로운 언어창출에도 도움 된다.</p> <p>-> 제시문 (가-1)의 논지와 (가-2)의 논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채점위원들이 (가-1)과 (가-2)의 논지를 모를 리는 없겠으나,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표현력에서 감점요인입니다.) 그리고 독해력과 논증력에서 큰 감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일단 문제는 (가-1)과 (가-2)의 입장에서 제시문을 평가하라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생각으로 평가를 한 것인지, (가-1)로 평가한 것인지, (가-2)로 평가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뒤죽박죽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는 독해력, 논증력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입니다.</p>
[문제 2]	
1문단	<p>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A국가의 사회규범은 변화한다.A국가에서 이러한 변동성은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규범이 변동하면서 처음엔 17.2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던 여성 사법 시험 지원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38퍼센트까지 증가했다. 이는 남녀 지원자의 비율이 점점1대1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험이 사법 시험임을 감안할 때, A국가는 남녀 평등사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B국가의 사회규범은 변화하지 않는다. B국가를 현재 남녀불평등사회라고 규정짓긴 어렵지만, A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남녀 평등사회에 다가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p> <p>-> ‘A국가에서 이러한 변동성은 긍정적 효과를 얻고 있다.’라는 문장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늘었다고 하여 무조건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는 남녀 지원자의 비율이 점점 1대1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문장은 크게 필요 없는 문장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숫자의 표기는 되도록 한글로써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대1은 일대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읽는 사람을 위하여 좋습니다.) ‘B국가를 현재 남녀불평등사회라고 규정짓긴 어렵지만, A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남녀 평등사회에 다가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문장에서 ‘규정짓긴’은 ‘규정하기는’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이러한 판단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념 또는 규범에 기댄 것으로서 논증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p>

<p>2문단</p>	<p>이러한 사회변동의 차이에는 사법시험 성별 지원율에 대한 구체적 법률의 존재 유무와 사람들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 법률의 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A국가는 없는 반면 B국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A국가의 지원자 성비가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제시문 (다)의 네덜란드의 경우와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경우 그 사안과 관련된 것은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혹은 다른 외부요인에 의해 조금씩 변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B국가에서는 계속해서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 심지어 약1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원자의 성비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외부요인이라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구체적 법률로 인해 대마초가 불법 마약으로 계속 관리되며, 대마초 흡입이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A국가는 있고, B국가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인다. A 국가의 여성 지원율은 대체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일시적인 외부 규제보단 사람들의 여성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함을 원인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B국가는 미국의 경우와 대조하여 큰 변화가 없었음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사람들의 인식변화로 법률까지 바뀐 미국에 비해 B국가에서는 아무런 결과적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p> <p>-> 문제가 원하는 것은 (다)가 사회규범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를 캐치한 후에 이를 가지고서 (라)의 국가들의 사회규범을 평가하는 것인데, 갑자기 (다)의 내용에 들어있는 구체적 법률이라는 기준으로 평가를 시도한 부분 등 전체적으로 독해력이 크게 부족하여 문제가 원하는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였고, 답안의 구성도 복잡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좋지 않은 답안이라 사료됩니다. 이 답안은 출제의도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첨삭하기 보다는 차라리 학생이 가이드라인 혹은 해설을 본 후 다시 한 번 문제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본 후에 답안을 다시 한 번 작성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p>	
<p>총평</p>	<p>이번 문제가 어려웠나요? 리라이팅 대상입니다. 언제 비전형적 문제가 출제 될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p>	
<p>평가</p>	<p>문제 1</p> <p style="text-align: center;">C-</p>	<p>문제 2</p> <p style="text-align: center;">C-</p>

5) E학생 답안	
[문제 1]	
1문단	<p>제시문 (나)의 언어 현상은 단어가 등장한 목적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나)의 단어들을 언어의 신속한 전달과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들로 분류할 수 있다. 가스거나 추카추카, 살양하눈 등의 단어는 그 자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기존의 단어들을 생략, 축약하거나 의도적인 변형을 가한 것이다. 반면 (나)의 나머지 단어들은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를 가리키거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행동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로 분류할 수 있다. 삼포시대와 같은 단어의 경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능청남이나 운도남/운도녀 등의 단어는 기존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라는 점에서 후자는 전자와 대비된다.</p> <p>->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조와 문장으로 된 글이라서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행동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로 운도남/운도녀를 선택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운도남/운도녀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운동화 신고 출퇴근하는 도시 남자와 여자라는 말로써 장기 불황 속에서 실용적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신조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롭게 등장한 사회현상에 대한 단어이므로 앞의 삼포시대와 합쳐서 사회현상을 반영한 단어로 묶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p>
2문단	<p>이를 제시문 (가-1)의 논지에서 본다면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전자와 같이 화자의 의도를 신속하게 전달하거나, 상대방에 친근감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구성원들 간에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 형성된 유대감은 사회 내의 구성원들이 같은 사고 체계를 공유하는 것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내의 사회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기에 제시문 (가-1)은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가-1)은 후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 상황이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만듦으로써 그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 규범을 파괴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p> <p>-> 제시문 (가-1)의 논지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라도 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1)이 전자의 단어군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너무 유대감 형성이라는 주제에 치우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규범이 제대로 작동하여 구성원들이 사회유지가능성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되어 그 토대위에서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논증을 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도 왜 그것이 사회 규범을 파괴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증이 없고, 자신의 신념이나 상식에 기대어 추상적 논증을 한 것에 불과하여 논증력에서 큰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p>

3문단	<p>한편 제시문 (가-1)과는 달리 제시문 (가-2)의 논지에서는 후자의 언어 현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다. 후자와 같이 일탈적인 상황이나 구성원에 대해 단어를 만듦으로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사회적 차원으로는 사회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사회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기존의 사회규범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전자의 단어군에 대해서는 새로운 문제 상황이나 일탈적 사회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을 근거로 후자의 단어군에 비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고 평가할 것이다.</p> <p>-> 이 문단에도 위와 같은 지적이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써 읽는 사람을 설득시켜야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추상적, 일반적 논증에 그쳐 글 전체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쉬운 문장과 쉬운 구조로 글을 썼으나 독해력과 논증력에 문제가 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p>
[문제 2]	
1문단	<p>제시문 (다)는 사회 규범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한국의 경우 마약은 처벌의 대상이며 소지나 운반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만큼 엄격한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의 네덜란드나 미국의 몇몇 주들의 경우 마약은 합법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보수화되어 마약이 유행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불법화 되었던 마약이 최근 들어 합법화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 규범은 장소나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것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p> <p>-> 아주 좋습니다. 사회규범이 장소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두괄식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근거도 간결하고 명확하여 좋습니다. 문제가 원하는 답안입니다.</p>
2문단	<p>이를 통해 볼 때 제시문 (라)의 A국가에 대해 제시문 (다)의 사례들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 할 수 있다. 1999년부터 A국의 사법시험 여성 지원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A국가에서 사법시험과 법조계에 대한 인식이 여성들에게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추론하고 있다. 반면 B국가의 경우 1999년도와 2008년도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때 10여년간 사회 규범이 변화를 보이지 않았거나 변화하였다고 해도 변동 폭이 미미 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경직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였으나, 1999년 이미 A국가에 비해 여성의 사법시험 지원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A국이 1999년에서 9년이 지난 2008년에 가서야 B국가의 1999년 여성 지원율과 같아졌다는 점은 B국이 A국에 비해 여성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인 사회 규범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p> <p>-> 위에서 이끌어낸 일반적 명제인 ‘사회규범은 국가별, 시대별로 변화한다.’를 구체적 사안인 (라)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좀 더 명확히 드러냈으면 어땠</p>

	<p>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위의 답안과 밑의 답안의 유기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사회규범으로 치환하고 국가별 변화양상은 같은 시기의 A국과 B국의 여성 사법시험 지원율로 시대별 변화양상은 A국의 십년간 지원율 변화양상과 연관시켜 서술했으면 더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p>	
3문단	<p>그러나 위의 분석과는 반대로 A국에 대해 오히려 경직된 사회 규범을 가졌다고 말 할 수도 있다. A국가의 경우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지원율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 이러한 변화는 큰 틀에서 보면 여성의 지원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띤다. 이는 지난 10여 년 동안 A국에서 사법시험의 위상이 그대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A국의 지원자의 총계가 대부분의 경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상황을 더 잘 보여준다. 반면, B국의 경우 A와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08년의 경우 1999년에 비해 사법시험의 위상이 약해져있다고도 볼 수 있다.</p> <p>-> ‘그러나 위의 분석과는 반대로 A국에 대해 오히려 경직된 사회 규범을 가졌다고 말 할 수도 있다.’라는 문장은 어색합니다. 앞에서 B국이 더 개방적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A국은 그에 비해 조금 더 경직된 사회일 것인데, 역접 접속사를 사용해놓고 앞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별 사법시험 지원율을 가지고 사법시험의 위상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여성의 사법시험지원율이 높아졌다고 사법시험의 위상이 그대로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p>	
총평	논중력, 논중력, 논중력.	
평가	문제 1	문제 2
	C0	B-

<문제 1> ‘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튀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공감’(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문제 2> ‘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나),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

The 논술	2014 연세대 인문
--------	-------------

<문제 1>	<p>‘공감’ 개념을 실마리로 삼아 제시문 (가), (나), (다)를 읽을 수 있다. (가)의 아이히만 및 (나)의 시적 화자의 태도와 비교하여 (다)의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에 대해 보이는 태도의 특징들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p> <p>* ‘공감’ (sympathy)이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타자의 감정이나 상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p>
<문제 2>	<p>‘상상’, ‘주체’, ‘폭력’ 개념을 모두 사용하여 ‘공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제시문 (가), (다), (라)의 사례를 활용하시오. (1,000자 안팎으로 쓰시오. 50점)</p>

제시문 (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책임자인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비밀 정보기관에 의해 납치되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검사: 피고인의 본명은 칼 아돌프 아이히만, 1939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스 계획의 집행 책임자로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증인: 제가 본 피고인은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대인 이민자들을 위해 직업학교도 세우는 등 개인적으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검사: 그렇다면 왜 유대인 학살을 지휘했습니까.

아이히만: 저는 단지 국가의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저의 임무였으며, 저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검사: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남녀를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아이히만: 제가 만약 명령받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시문 (나)

포스터 속에 들어 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결눈질을 한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 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니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을 뿐이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마셔 볼 공기(空氣)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 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複寫) 속에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 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제시문 (다)

(트로이아의 왕 프리아모스의 아들 뤼카온은 아킬레우스에게 사로잡힌 뒤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그에게 아킬레우스가 이렇게 말한다.)

“자. 친구여, 그대도 죽을지어다. 왜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가
 그대보다 훨씬 훌륭한 파트로클로스*도 죽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 나 또한 얼마나 잘 생기고 큰지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고, 나를 낳아 주신 어머니는 여신이시다.
 하지만 내 위에도 죽음과 강력한 운명이 걸려 있다.
 누군가가 창이나 또는 시위를 떠난 화살로
 나를 맞혀 싸움터에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갈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낮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다.”
 이렇게 말하자 뤼카온은 무릎과 심장이 풀어져
 잡았던 창을 놓고 두 팔을 벌리며 주저앉았다.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날카로운 칼을 빼어
 목 옆 쇠골을 내리쳤다.

……[중략]……

검은 피가 흘러내려 대지를 적셨다.

* 파트로클로스: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트로이아의 영웅인 헥토르에게 살해당했다.

제시문 (라)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에버렛 워딩턴은 1955년 어느 날 어머니가 무단 침입한 강도에
 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용서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학자인 워딩턴이었으나
 그는 사건 현장을 보고 몸서리를 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하고 소리쳤다.
 그는 분노 속에서 강도들에게 복수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신의 폭력적 본성과 죄성(罪性)
 을 깨달았다. “나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않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워딩턴 교수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누군가에게 살의를 품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딱한 아이들도 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후 그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깊은 고뇌와 연구로 이어졌다. 그는 현재 교육과 연구, 저술과 상담을 통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세를 갖도록 돕고 있다.